

발전기금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회원님들의 정성이 담긴 발전기금이 4월 말 현재 96,277,300원에 이르렀습니다.

금전 여유가 많지 않은 노년 생활, 더구나 코로나가 심신을 옥죄는 이런 상황에서 많은 적든 기부금을 낸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님에도, 사우회가 맡은 바 소임을 제대로 하기를 바라는 회원님들의 애정과 성원이 담겨있는 귀한 뜻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결혼식 또는 장례식을 잘 마쳤다고 발전기금을 보내주신 분이 많았습니다. 이종민(관리)회원님은 주 수입원인

국민연금 한 달치를 몽땅 보내주셨는가 하면, 윤여복(보도)회원님은 米壽를 맞은 기념으로 88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故최인열(기술) 회원님의 미망인 정옥현 여사는 고인의 뜻을 이어 세 번째 발전기금을 보내주셨고, 박연식(관리)회원께서는 매월 일정 금액을 보내오십니다. 지금까지 300명 넘는 분들의 마음과 마음이 사우회에 담지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귀한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범적이고 알뜰한 문화방송 사우회를 꾸려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발전 기금을 내주신 분들(3월 10일 이후)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mbcsau.com)에 있습니다

- 정광수(기술) 50만원
- 김지현(업무) 50만원
- 최호룡(편제) 50만원
- 장한진(관리) 30만원
- 정관웅(보도) 30만원
- 조형철(관리) 20만원
- 김홍기(보도) 20만원
- 이오기(편제) 10만원
- 진두범(관리) 10만원
- 정준모(관리) 10만원



정광수



김지현



최호룡



장한진



정관웅



조형철



김홍기



이오기



진두범



정준모

차 회장, 노서을 고문 예방禮訪



5월 4일 오전, 차인태 사우회장과 김수량 고문, 김상옥 상임부회장, 이석일 사무처장 일행은 어버이주간을 맞아 강서구 목동 하늘정원요양원에 입원 중인 노서을 고문을 예방했다. 사우회 발기인 중 한

분으로 오랫동안 사우회를 위해 공헌했던 노 고문은 올해 白壽(99세)를 맞았지만 보행이 다소 불편한 것을 제외하면 특별히 편찮은 곳이 없을 정도로 건강을 유지하고 계셨다. 방역 때문에 비닐 가림막을 통해 이루어진 면회라서 다소 부자연스러운 만남이었지만 뜻밖의 방문에 기쁜 표정을 감추지 않은 노 고문에게 차 회장과 김 고문은 각별한 위로의 말과 함께 준비한 선물을 전달했다.

세란병원과 2021년도 건강검진 협약 체결

사우회는 세란병원과 2021년도 건강검진 협약을 새로이 체결했다. 그동안 사우회원들이 이용해왔던 세란병원의 종합건강검진센터에서는 최근 달라진 의료수가와 이용자가 선호하는 검진 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우회 맞춤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새로 구성해서 선보인다.

구체적인 사항은 1577-0196 또는 여창현 팀장(010-3034-1348)에게 문의하시기 바란다.

세란병원 종합건강검진센터

검진예약상담: 1577-0196 / 담당자: 여창현 팀장 010-3034-1348
SERAN HEALTH PROMOTION CENTER



대한민국 NO.1 코끼리 마늘 브랜드 갈릭고에서
MBC사우님들을 위한 특별혜택을 드립니다!

정기배송 할인안내



최근 제조된 제품으로 매월 신선하게 마시자!

· 주문 및 고객센터 ·

T. 1661-7036 / 031)284-7018
H. 010-3244-1771

· 갈릭고 만나기 ·

갈릭고 혹은 황제마늘 을 검색하세요.
더 많은 제품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6개월

~~450,000원~~ → 27%
330,000원
(한달 55,000원)

아연 2개월분 증정
(7만8천원상당)



12개월

~~900,000원~~ → 34%
600,000원
(한달 50,000원)

아연 4개월분 증정
(15만6천원상당)



MBC 지역사, 관계사 새 대표 선임

- 대전MBC 사장 김환균
- 제주MBC 사장 이정식
- 원주MBC 사장 송형근
- 강원영동MBC 사장 한정우
- MBC C&I 사장 황외진
- 경남MBC 사장 이우환
- 울산MBC 사장 전동건
- 포항MBC 사장 양찬승
- 전주MBC 사장 김한광
- MBC아트 사장 김상훈
- 춘천MBC 사장 김종규
- 여수MBC 사장 이호인
- 대구MBC 사장 이동민
- 목포MBC 사장 이순용
- MBC플레이비 사장 최성금
- MBC충북 사장 한기현
- 안동MBC 사장 유재용
- 광주MBC 사장 김낙곤



김환균



이우환



김종규



한기현



이정식



전동건



이호인



유재용



송형근



양찬승



이동민



김낙곤



한정우



김한광



이순용



황외진



김상훈



최성금

사우회 가입을 환영합니다



김환균(편제)
1987년 교양제작국 PD입사. 한국PD연합회장, 시사교양본부 국장, 현 대전 MBC 사장.



진흥상(보도)
1994년 보도국 입사. 영상취재부, 글로벌사업본부 팀장, 현 삼육대학교 겸임 교수.



송성호(관리)
1985년 입사. 정보콘텐츠부장, 감사2부장, 감사국장 역임. R편성기획부 정년 퇴직.



이길섭(편제)
1984년 편성국 입사. 예능국, 미래방송연구소, 2018~2021년 MBC충북사장 역임.



오현창(편제)
1984년 PD 입사. 드라마국CP, 글로벌사업본부장, 드라마본부 특임국장 등 역임.



정영훈(기술)
1985년 제작기술국 입사. 영상기술부, TV송출기술부 등 근무. 2019년 정년 퇴직.



송기원(보도)
1984년 보도국 입사. 보도제작국장, 선거방송기획단장, 전주MBC 사장 등 역임.

회/원/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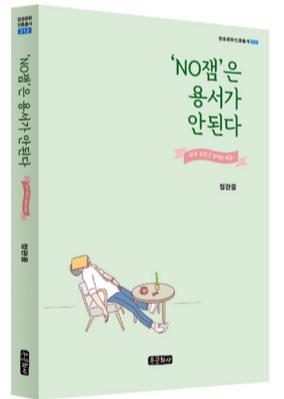
▶전인하(보도)
3월에 수원과학대 연기영상과 산학협력 조교수로 임용됐다. 서울과기대에서 IT전시 디자인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전 회원은 중앙대, 홍익대 등에서 강의를 해왔다.



▶성경환(ANN)
정부의 영상물 제작 및 기록보존을 주 업무로 하는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연임됐다. 한 국정책방송원은 세종특별시에 있다.



▶정관웅(보도)
중앙대에서 강의했던 '콘텐츠와 미디어의 쟁점'을 바탕으로 엮은 'NO 잼은 용서가 안된다'를 출간했다. 그 강의는 학생들에게 '인기강좌'로 뽑혔고 '우수강사상'을 받았다.



회비와 발전기금을 보낼 계좌번호

연회비는 사우회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고 사랑입니다. 회원들께서 보내주시는 연회비는 사우회 운영과 경조비로 사용됩니다. 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들께서는 사우회가 드리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쉬움도 생깁니다. 발전기금은 사우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됩니다. 사우회를 아끼는 마음에서 금액에 상관없

이 동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비 납부와 발전기금에 관한 정보는 사우회 홈페이지(mbcsau.com) 또는 사무처(722-7416)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납부계좌 : **KEB하나은행**
158-890070-29405
MBC사우회

장례물품에 사우회 로고를 넣었습니다



사우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상조회사 C&G라이프에서는 장례물품으로 쓰이는 컵, 젓가락, 냅킨(사진) 등에 사우회 로고체를 인쇄하여 이 상조회사를 이용하는 사우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미 이용해본 회원들의 전언에 따르면 물품에 로고체가 찍혀 있어서 '사우회를 통해 MBC가 어려운 일을 당한 유족들에게 직접 위로를 해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비용도 다른 상조회사에 비해 저렴하고 무엇보다 후불제라서 편의성과 활용도가 높은 상조회사니만큼 많은 회원들께서 C&G라이프를 이용해주시길 바라고 있다.

경조사항

구순: 전응덕(보도)32.6.20 김영효(편제)32.7.17
 팔순: 김성희(편제)42.6.3 황수석(전주)42.6.4 심재주(관리)42.6.9
 채규억(관리)42.6.20 심상수(편제)42.7.7 김영균(관리)42.7.14
 김 용(전주)42.7.21
 고희: 전평국(보도)52.6.1 한순애(관리)52.6.7 정진민(관리)52.6.19
 이강식(관리)52.7.4 김휘성(기술)52.7.13 김정제(관리)52.7.28
 회갑: 김재천(관리)61.6.10 김진광(관리)61.6.25
 이진숙(보도)61.7.4 홍신숙(관리)61.7.27
 권수훈(관리)61.7.27
 결혼: 천복용(기술)딸 4.18 정관웅(보도)아들 5.1 방운식(관리)딸 5.1
 강찬임(관리)딸 5.1 정영훈(기술)아들 5.8 주원국(보도)딸 5.22
 하동근(보도)딸 5.22 김태현(편제)딸 5.28
 부음: 조중현(편제)부친상 2.2 정상모(보도)모친상 3.17
 박용홍(관리)장모상 3.23 이은실(편제)시모상 3.26
 정계춘(편제)모친상 3.31 정철영(보도)장인상 4.6
 황희만(보도)배우자상 4.14 나명수(관리)장모상 4.15
 오현창(편제)장인상 4.19 정중희(기술)부친상 4.29
 박병주(관리)모친상 5.11

연회비

2021년: 정봉일 김양배 남기두 차재영 이영일 최노석 정영웅
 홍순홍 장영배 정진민 곽노우 정종국 이하걸 조은국

이상림 이종화 진두범 박창순 장기재 정갑표 조혜숙
 송재익 이승재 나명수 권태규 김건영 이오기 김영균
 박준하 이종현

2023년: 방운식 송인의 이영하 이재휘
 2026년: 정계춘

주소 / 전화번호 변경

편제: 이임생 경기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165번길38
 최영호 경기 시흥시 목감남서로92-15
 보도: 이선재 충북 제천시 청풍호로10길31
 이해성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100
 기술: 김경환 경기 과천시 관문로166
 관리: 은정기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26로77
 김재수 강원 양양군 강현면 회룡길46-53
 조혜숙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124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박경식(편제)
 4월 10일 별세. 향년 85세. 1968년 입사. 라디오제작
 부, FM빙송부, 라디오 심의부 등에서 근무, MBC예
 술단 상무 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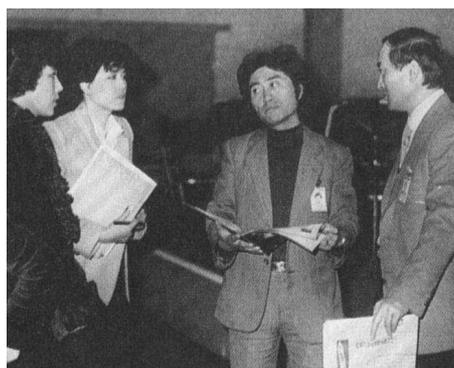
故 박경식 선배님을 추모함



윤건호(편제)

토요일 아침.
 박경식 선배의
 전화다.
 “박 선배, 오랜
 만입니다”
 “아저씨 저 희
 정인데요”
 “호일이 동생
 희정이지?”
 “아버지가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호일이 아버지 박경식 선배의 별
 세 소식을 이렇게 전해 받았다.

70년대 MBC 신입사원 한 달 봉
 급이 겨우 하숙비나 되던 시절.
 “하숙이 힘들면 우리 집에 오라
 우, 빈 방 하나 있어”
 무슨 생각에 박 선배는 내게 그런



제작회의

소릴 했을까?
 그렇게 시작된 인연으로 신혼도
 박 선배가 살던 상도동 아파트에서
 시작했다. 회사 사람들이 가족 같
 이 살던 그런 시절이었다.

평안북도 태천 출신, 감리교회 목
 사의 아들 박경식은 감리교 신학대
 학을 다니다 해병 군악대에 입대하
 다. 악보 관리와 편곡, 사보 등 음
 악 업무를 했던 인연으로 60년대 초
 MBC라디오 음악부에 입사했다.

70년대 문화체육관이나 8.90년
 대 여의도 공개홀에서의 조희나 창
 사기념일에 사가(社歌)를 부를 때면
 앞에 나와 지휘하던 박경식은 당시
 의 사원들에게 낯익은 얼굴이다.

‘MBC 가을맞이 가곡의 밤’, 창사
 20주년이던 1981년의 ‘MBC 대학
 가곡제’, 1983년 ‘MBC 창작동요
 제’ 등 MBC의 많은 음악행사 자
 료에는 박경식이란 이름이 빠지지
 않는다. 음악 전문가였다.

1978년 레코드실 관리 책임자가
 된 그는 원판 2만 5천장, 라이센스
 판 3만 5천장 도합 6만 여장의 레
 코드를 1년 6개월에 걸쳐 직접 하
 나하나 분류하고 목록을 작성해서

오늘날의 레코드 라이브러리로서
 의 체제를 갖추게 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방송대상까지 받은 한국 민요대
 전은 박경식 FM부장님의 결단 덕
 이었다. 묻혔던 기획안이 빛을 보
 게 해주신 분. 당신이 직접 운전
 하는 차로 첫 출장을 함께 갔던 것
 도 어제 같고...참 자상하게 챙겨
 주던 부장이었다”

“박 선배에게 악보 보는 법을 배
 웠다. ‘MBC 청소년 음악회’ 연출을
 맡게 돼 첫 회 녹화를 위해 레코드
 실에서 악보를 보가며 베토벤 교향
 곡7번을 셀 수 없이 들었다.

악보 위에 연출 노트를 만들 때
 도와준 선생님이 박경식. 요란하고
 빛나진 않았지만 진짜 MBC 선배
 였다”

“참 기억나는 사람. MBC 음악행
 사엔 꼭 필요한 사람이었고 일도
 참 깔끔했는데.”

박경식을 기억하는 MBC 사람들
 얘기다. 가고 없는 빈 자리에 이런
 여운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은 행복
 한 사람이다.

박 선배 장례 끝나고 얼마 후 유



MBC 예술단 상무 시절

가족과 식사를 함께 했다.
 “지난해 수술 후 쇠약해지긴 했
 지만, 가던 날도 나랑 얘기하다 잠
 자듯이 갔다. MBC 참 좋은 직장이
 있었어요. 평생 자랑스러웠고 고마
 워했어요. 즐겁게 일했고 갈 때도
 편하게 간 복 받은 사람. 참 세상 잘
 살았어요. 그저 고마울 뿐이죠.”

박경식 선배의 부인 유창주 여사
 얘기다. 교회 합창단원들로 항상
 시골벽적했던 상도동 호일이네 집.
 사람 좋은 장로였고 자상한 직장
 선배였던故박경식 PD.

기쁨과 평화가 충만한 선배님의
 영생을 축하합니다.

김승월칼럼

침묵과 소음



김승월
(편제·이사)

■ 침묵

침묵이 흘렀다. 부활절 썰목요일, 예수님의 고난 주간 미사 중 영성체를 마치고 기도를 올리던 상암동성당 전대규 신부님의 기도 소리가 끊어진 것이다. 무슨 일일까, 제대를 바라보았다. 신부님이 제대에서 뒤로 물러나 앉아 있다. 신부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 아픈 나를 사랑하느냐’.....”까지 기도하고는 감정이 북바쳐 기도를 잊지 못한 것이다. 신부님의 울음 땀 마지막 기도 소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 수난 장면과 겹쳐졌다. 침묵은 그 장면을 선명히 그려 주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다. 책이 귀하던 시절, 어렵사리 빌려 본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 마지막 장면이 아직도 가슴을 아리게 한다. 순수한 사랑만을 갈망하던 여인 알리사가 세상을 떠난 10년 후, 연인이던 제롬이 그녀의 유품이 보관된 방을 찾았다. 안내해준 사촌 줄리엣이 어둠 속에서 스러지듯 주저앉는 마지막 구절이다.

“그녀가 일어서는 것을 보았다. 한 걸음 내딛더니 맥이 빠진 듯 곁에 있는 의자에 다시 털썩 주저앉는 것이었다. 그녀는 두 손을 얼굴로 가져갔다. 울고 있는 것 같았다. 하녀가 등불을 들고 들어왔다.”

큰 슬픔이 소리를 삼켜버린 것이다. 침묵의 통곡. 읽고 또 읽으며 연신 눈물 흘렸던 기억이 난다. 소리 내지도 못하는 슬픔이 더 클 수도 있다. 애통해하며 큰 소리로 울부짖는 사람도 있지만 숨넘어가듯 자지러지는 사람도 있다.

라디오에서는 ‘묵음’ 黙音이란 표현 방법이 있다. ‘침묵의 소리’라는 뜻이다. 말과 말의 사이라는 의미로 ‘사이’라고도 부른다. 몇 초 동안 의도적으로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다. 초창기 라디오에서 묵음은 방송사고로 간주했다. 말과 말 사이가 길면 무조건 줄이려 했다. 라디오 드라마에서 세밀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묵음의 기능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후로 묵음은 라디오의 중요한 표현 요소가 되었다. 이제는 라디오 표현 요소 4가

지를 꼽으면 ‘말소리, 음악, 효과음 그리고 묵음’이다.

묵음의 첫 번째 기능은 강조다. 묵음은 묵음 다음의 이야기나 묵음 앞의 이야기를 강조해준다. 신부님의 마치지 못한 기도 뒤 침묵이 여기에 해당한다. 묵음은 장소 변화나 시간 흐름을 상징하기도 한다. 좁은 문의 마지막 장면을 라디오로 표현했다면, 묵음을 사이사이 넣어 시간의 흐름을 나타냈을 것이다. 묵음은 라디오 드라마에서는 더 많은 의미를 갖는다. 동작을 묘사하거나 심리를 그려낸다. 두 사람 대화 사이의 간격은 두 사람 감정의 교감과 진행 상황을 표현한다. 사이 없는 대화는 긴장감 속도감, 사이 있는 대화는 평온함을 보여 주기도 한다.

커뮤니케이션에서 침묵은 어떤 의미일까. ‘침묵의 나선이론’ Spiral of Silence Theory 이 있다. 독일 노이만 Elisabeth Noelle Neumann이 주창한 커뮤니케이션 효과 이론이다. 사람들은 여론이 자신과 생각이 같으면 말을 하지만, 여론과 다르면 침묵한다는 것이다. 여론은 압력이 되어 소수자를 침묵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만든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를 드러내지 않고 지지했던 ‘사이 트럼프’처럼 자신의 생각을 숨기게 된다. 소외를 두려워하는 인간의 속성을 짚어낸 이론이다.

비판적으로 보자면 침묵은 힘센 세력에 동조하는 것이다. 비겁한 사람으로 매도하기도 한다. 하지만 침묵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기도 하다. 침묵을 강요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애써 무관심으로 위장하여 침묵의 가면 뒤로 숨기도 한다. 절망감에 침묵하며 자신 앞가림마저 포기하기도 한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들 한다. 머리를 두르고 폐지여 지르는 소리만 듣지 말고 멀쩡이 물러서서 침묵하는 이들, 그들의 침묵도 헤아리는 너그러움이 필요하다.

신앙생활에서도 ‘침묵’ 沈黙은 의미가 깊다. 불교에서는 ‘묵언수행’이란 수련 방법이 있고 가톨릭에서도 ‘침묵 피정’이 있다. 어느 가톨릭 단체에서 하는 신입 회원 교육을 받았다. 입소하자마자 하루 침묵을 강요받았다. 실수로 말할까 봐 바짝 긴장했다. ‘말하지 말아야지’를 수없이 되뇌었다. 무슨 일이 있으

면 속으로 혼자 묻고 혼자 답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나를 보았다. 침묵 속에서 나를 만났다고나 할까.

엔도 슈사쿠의 소설 ‘침묵’을 영화로 봤다. 포르투갈의 젊은 신부들이 배교했다고 소문난 스승 신부를 찾으러 일본에 밀입국했다. 당시 일본에서는 성직자를 배교하도록 집요하게 몰고 갔다.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성화聖畵를 밟으라고 강요하고, 성화를 밟지 않으면 무고한 신자를 살해했다. 바닷가에 세운 십자가에 매달려 물이 차올라 숨을 거두는 순교자들, 성화 밟기를 거부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순교자들에게 하느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다. 성화를 밟고, 일본 여인과 결혼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스승 신부에게도 하느님은 침묵한다.

“예수의 마음 배우기 침묵 피정을 혼자서 40일 동안 했는데요. 입을 닫는 순간 귀가 열리고 오감이 열리죠. 침묵 속에서 기도를 30일쯤 하다 보니까 저의 눈동자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면을 깊이 있게 성찰하다 보니 그 작은 소리마저 들린 거죠. 침묵 속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어요. 침묵은 하느님의 언어입니다.” 聖바오로수도회 안성철 신부님 말이다. 헤아릴수록 침묵은 의미가 깊다.

■ 소음

지금은 안 쓰지만 “지방방송 꺼주세요”라는 말이 한때 유행했다. 모임 참석자들이 끼리끼리 잡담하면 진행자가 중요한 이야기 하는데 주의를 분산시키지 말라는 경고였다. 커뮤니케이션 소통 모델에서는 이를 소음noise이라고 한다.

음향만으로 구성된 라디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만드느라 도자기 소리를 녹음한 적이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자기 소리를 찾았더니 도자기 ‘빙렬’氷裂 소리란다. 도자기에 바른 유약의 온도가 높았다가 식으면서 수축되는 속도와 도자기 만드는 흙(태토胎土)가 식으면서 수축되는 속도가 다른데, 유약 바른 표면이 태토보다 빠르게 식으면서 도자기 표면은 미세하게 터지고 갈라지면서 실금이 생기게 된다. 이때 얼음장이 깨지는 소리가 난다. 빙렬 소리다. 청자 표면의 무수한 실금은 그렇게 생긴다. 빙렬소리는 영롱하다. 가마에서 뜨

겁게 달궜진 수십 개의 도자기들이 식으면서 잇달아 내는 빙렬소리를 듣다보면, 핸드벨, 실로폰 합주를 듣는 듯한 환상에 빠진다. 도자기가 내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라고 할 만하다. 빙렬소리를 녹음하고 방송사에 돌아와 다시 들어보니 형광등 소리와 먼 곳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깔려 있었다. 빙렬소리에 취해 소음 차단을 잊은 것이다. 편집과정에서 소음 줄이는 소프트웨어인 노이즈리덕션noise reduction을 사용해 큰 소음은 잘라내고 작은 소음만 남겼다. 거슬렸던 소음은 확실하게 줄었는데 빙렬소리가 뭉뚱해졌다. 들을수록 소음이 귀에 거슬렸지만 노이즈 제거한 소리로 방송했다. 세월이 흐른 뒤 다시 들었더니 이번에는 뭉뚱해진 빙렬소리가 너무 거슬렸다. 소음이 있더라도 선명한 빙렬소리를 방송할 걸 그랬나 생각했다.

소음이 필요한 곳도 있다. 예민한 분들이라면 화장실에서 큰 일 볼 때, 볼 일 보는 소리만 들리면 몸이 오그라들게다. 이런 때는 자신이 내는 소리를 가릴 소음이 필요하다. 여성용 화장실에는 물소리 내는 음향기기가 설치되기도 한다. 여의도 고수부지 화장실에 들른 적이 있다. 클래식 연주가 나왔다. 외국 화장실 갈 때마다 느끼는데 대한민국 화장실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우아했다. 하지만 부담스러웠다.

익숙한 소음은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고 해서 공간음을 만들어 팔기도 한다. 영국의 소리 사업가 줄리안 트레저 Julian Treasurer는 공항 대기실, 호텔 로비와 같은 장소에 어울리는 공간음을 만들어 판다. 새소리, 파도소리 같은 자연음향과 음악을 적절하게 섞은 소리다.

“잡음도 마찬가지로, 잡음이 좋으나 나쁘냐 보다 잡음이라도 어떻게 쓰느냐를 생각해볼 일이다.

높은 분이 한 말씀 하시는데 뒤에서 뭐라고 하면 ‘궁시렁대지 말라’고 한마디 듣는다. 토를 달면 ‘말대답한다’고 면박 당한다.

불협화음 없이 모든 걸 해내길 기대한다면 독재자 아닐까. 함께 사는 세상이다. 때로는 잡음도 소음도 받아들일 마음이 필요하다.

“사랑으로 본다면 우주에서 쓸모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 그 대로다.

MBC 창사60주년 기념

〈다시 읽는 그때 이야기〉

콜롬버스의 달걀



故 김기주

1966년 10월 어느 날, 미국으로 연수를 가라는 명을 받았다. 그것도 며칠 안으로 떠나라고 했다. 미국 NAB(全美放送人協會)가 라디오 방

송만을 하는 세계 13개국 기자 한 명씩을 초청해 라디오 뉴스 연수를 시켜주는 프로그램에 생각지도 않은 특혜(?)를 받은 것이었다. 나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하고 워싱턴으로 향했다. 이 연수가 『뉴스데스크』를 잉태하는 계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르는 채로.

1970년 가을 프로그램 개편을 이틀 앞둔 10월 3일 토요일 오후 보도국장실.

“국장님. 보도국장으로서 정해진 권한과 의무가 있겠습니까만, 프로그램 담당자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주는 것도 국장의 의무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에 나도 전적으로 동의해요. 근데 무슨 말을 하려고 서론이 그렇게 길어?”

“동의하신다는 그 말씀 믿어도 되는 거죠? 약속하신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약속할게. 말해봐”

바로 그날 TV보도편집부장으로 보임된 나는 박근숙 보도국장에게 이렇게 다짐을 받고 나서야 말을 꺼냈다.

“지난번 가을개편을 위한 회의 때제가 제안했던 ‘앵커뉴스’, 그러니까 취재기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보도하는 형식의 뉴스 말입니다. 사실 작년 TV 개국 때부터 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제가 자신이 없어서 용기를 내지 못했지만 이제는 꼭 해야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

저 용단을 내리지 않으면 KBS나 TBC가 먼저 치고 나올텐데 나중에 뒷북을 치느니 우리가 선수를 쳐야 합니다. 이런 TV뉴스 형태는 세계적인 추세라서 우리나라도 조만간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개편 때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야 합니다. MBC TV뉴스가 앞장서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못을 박아놓고 나를 몰아치면 내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잖아. 그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다시 한번 설명해봐요.”

말주변이 없는 나였지만 최대한 쉽게 그리고 열심히 설명했다.

“지금 TV뉴스는 기자들이 써주는 기사를 진행자가 ‘앵무새’처럼 읽는 형태 아닙니까. (이 ‘앵무새’라는 표현은 당시 최세훈 아나운서 실장이 쓴 책 ‘앵무새의 변’에서 인용한 것이었다) 이제 그런 식의 뉴스로는 경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다는 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는데, TV뉴스란 그런 형태가 돼서는 안된다고 선진국에서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자가 앵커를 맡고, 취재기자들이 뉴스가 발생한 그 현장에서 생생한 리포트를 하되, 해설이 필요한 아이탬이라면 앵커가 ‘그래서 이렇다는 뜻이다’라고 해설을 해주고, 논평이 필요한 기사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라는 코멘트를 해주는 그런 생생하게 살아있는 뉴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도 한 30분 정도는 해야 되구요.”

박근숙 국장이 사장과 상의하러 간 동안에 나는 서규석 편성국장에게 달려갔다. 서 국장은 학구적인 분이라서 외국의 방송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의 겸 의견을 들어보고 싶었다. 역시 서 국장은 내 의견을 흔쾌히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런 뉴스의 형태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다짐까지 해줬다. 다만 ‘처음에는 20분 짜리 뉴스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즉석에서 프로그램 이름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이 바로 『뉴우스데스크』였다. 사장실에 다녀 온 박 국장으로 부터 ‘사장 결재를 받았으니 서둘러 준비를 하라’는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건잡을 수 없이 뛰었다. 자신있게 주장은 했었지만 막상 승낙을 받고 보니 조금 전까지의 자신감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돌연 막막한 생각이

엄습했다. 개편까지는 하루 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누가 앵커를 맡느냐’였다. 취재기자들의 리포트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앵커였다. 이때만 해도 ‘앵커’ ‘앵커맨’이라는 용어는 우리에게 생소했고, 심지어 보도국 내에서도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이가 태반이었다. 나는 ‘누가 앵커를 맡느냐’가 이 모험적인 『MBC뉴우스데스크』를 성공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영영 재기불능 상태로 몰아갈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공감대가 전혀 형성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주장한 일이고, 이런 형태의 뉴스가 시작되면 일선 기자들은 호응할지 몰라도 데스크 급에서는 ‘귀찮은 일’로 여겨 은근히 그만 두기를 바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이 염려는 후에 실제로 나타났다)

나는 박 국장이 이 십자가를 저야 한다고 결론졌다. 『MBC뉴우스데스크』는 보도국이 총력을 다 해야 성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일 뿐 아니라 나아가 MBC를 대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돼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보도국장이 앵커를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보도국장이 직접 뉴스 스튜디오에 앉아 뉴스를 진행하면 다른 사람들은 싫어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고개를 젓는 박 국장과 설전舌戰에서는 결국 내가 이겼다. 그러나 이 승리는 앵커에 관한 것일 뿐, 문제는 이제부터였다. 아직 ‘앵커 진행 뉴스’라는 포맷의 개념조차 모르고 있는 편집, 취재기자들에게 그 개념을 설명해야 하는 또 하나의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찌보면 이 싸움이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없었다. 개편이 시작되는 월요일 한낮까지 쳐도 이를 밖에 여유가 없었다. 이를 동안에 어떻게 본 일도 들은 일도 없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든단 말인가. 정말 무모한 일이었다. 그런데 나는 그런 모험을 왜 하겠다고 겁도 없이 덤벼들었을까. 은근히 후회가 되기도 했지만 이미 었지러진 물이고 D-day H-hour는 어김없이 다가왔다.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다.

1970년 10월 5일 월요일은 한국 TV뉴스 역사에 획을 긋는 날이었다. 첫 방송이 나간 후 회사 안팎에서 들려오는 격려의 말들이 용기를

줬다. 취재기자들은 출입처에서의 반응이 전과 달라지자 신이 났다. 그동안에는 TV뉴스에 별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기자를 향해 “김 기자, 어젯 밤에 잘 봤어요. 실물보다 TV에서 훨씬 좋아보이던데”라는 식의 반응이었다. 지금까지는 기사만 써서 넘겨주면 됐던 기자들로서는 업무량이 몇 배 늘어서 고달프기는 하지만 그런 격려에 피곤함도 있고 더욱 일에 열심이었다. 그러나 찬물을 끼얹는다고 할까, 비협조의 화살을 쏜다고 할까. 내 기를 꺾는 소리도 있었다. 예상했던 대로 보도국 내 데스크 급에서 화살이 날아왔다. ‘하던 대로 하면 편할텐데 괜히 일을 만들어 피곤하게 한다’는 것이다. 화살은 아나운서 실로부터도 날아왔다. 당시 아나운서실장은 끈질기게 항의 겸 설득을 했다. ‘앵커는 아나운서의 영역’이라는 요지였다.

나를 괴롭히는 것은 또 있었다. 스튜디오가 좁았고, 프롬터도 없고, 리포트 동시 녹음이 안됐고, rear screen도 없고, 자막도 한 가지 밖에 넣을 수 없었다. 그래서 목수에게 부탁해 나무상자를 만들고 백피트 필름 강통으로 돌림쇠를 만들어 텔렉스 용지에 멘트를 써서 감아 손으로 돌리는 ‘手製프롬터’를 만들었다. 방송 첫 날은 내가 FD를 보는 게 앵커를 안심시킬 것 같아 자청했는데 이게 웬일인가. 돌림쇠를 돌리는 순간 나무와 강통이 마찰하면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생방송 스튜디오에 울려 퍼진다. 온 몸에 식은땀이 비오듯 했다. 그렇지만 내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일도 있었다. 첫 방송 다음 날 임동훈 기자가 뉴스 프로듀서를 자청했고 그 다음 날은 강성구, 다음엔 이득렬 기자 등이 동참하면서 천군만마를 얻은 것이다.

1년 반 정도 지나 KBS, 또 그 후에 TBC에서도 비슷한 포맷의 뉴스를 시작했다. 이 ‘콜롬버스의 달걀’을 가능케 한 사람은 미국 CBS 워싱턴 네트인 WTOP의 라이언 보도국장이었다. 1966년, “곧 MBC도 TV뉴스를 한다니 매일 CBS ‘이브닝 뉴스’를 모니터 하라”는 그의 권유가 없었던들, 또 1968년 일본 TBS 텐 히데오 보도국장의 도움이 없었다면 『MBC뉴우스데스크』는 그 탄생이 훨씬 늦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1993년 MBC가이드에서 발췌〉



워싱턴 특파원 시절

MBC 창사60주년 기념

〈다시 읽는 그때 이야기〉



문숙영

두 해 전이었나, '여성싸롱'에서 좀 나오라기에 갔었다. 담당 PD가 옛날의 A 스튜디오(드라마나 생음악 프로그램 전용 스튜디오)같은 방으로 안내한다. 세상에! 생방송 스튜디오라는 건 기껏 사람 두셋 들어가면 딱 차버리는 쪼그만 밀실이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그래서 출연자가 셋만 돼도 꾸겨 앉히면서 "좁아서 미안합니다"고 허리를 굽신거려야 했지만 불평할 생각조차 해본 적 없이 일했었는데, 이건 백 명도 더 들어갈 만한 널찍한 방 한가운데 근사한 큰 테이블이 있고 저만치에 임국희와 이덕화가 앉아서 눈 나쁜 사람은 얼굴도 분간 못할만한 거리에 나를 앉히는 것이다.

원 세상에! 이건 너무 사치스러워. 낭비야. 돈 못버는 남편 밑에서 고생해 온 시어머니가 돈 잘버는 아들 덕에 호강하는 며느리를 시샘하는 마음이었다.

격세지감. 인사동 시절, 아귀다툼을 방불케 하는 스튜디오 쟁탈전 얘기를 지금의 PD들이 어찌 믿을 수 있을까. 조금 전까지 정답게 찾잔을 들던 사람들이 잠시 후 스튜디오 앞에서 샷대질하고 있는 광경을 보는 건 하나도 신기한 일이 아니었고, 여자PD치고 열 번 이상 울지않은 사람은 없었다. '절대부족'인 스튜디오 실정을 사리도 이성도 제쳐놓은 어저지 싸움과, 밤 늦은 잔업과, 열성으로 극복하던 그때의 동료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다. 나도 그들 중의 하나였다는 자부심과 함께.

스튜디오 뿐 아니라 자료도 기재

도 테입도 모든 게 결핍된 시절이었다. 한때는 'EM2'라는 취재용 녹음기가 제작부에 하나 밖에 없었다. 서너살 된 어린애를 안았을 때의 무게였으니 15킬로는 족히 나가지 싶다. 취재용 차량이라는 건 이름도 없던 때 이걸 어깨에 메고 취재를 가는 일은 고통이었다. 더구나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들 때였으니...하루는 낮 방송에 쓰려고 이 '무거운 아가야'를 메고 나섰다가 예정보다 시간이 길어졌다. 방송시간은 다가오고 택시는 안 잡히고, 초조한 마음과 어깨를 짓누르는 녹음기의 무게가 겹쳐 정말 비참한 기분이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길 한복판에 나가 달려오는 택시 앞에 두 팔을 벌리고 막아섰다. 기가 막혀 욕을 퍼붓는 것조차 잊고 멍한 표정이던 기사와 손님은 나의 읍소를 듣더니 두말 않고 회사로 데려다 주었다. 초를 다투는 생활의 긴박감이란 상쾌한 것이기도 하다. 택시를 겁탈하듯 얻어 타고 와서는 정신없이 테입을 편집하고, 원고를 쓰고, 10초 전..5초 전..초를 세면서 주조로 뛰어가 '시그널'을 걸고나니 방송 1초 전. '후유' 한숨을 내쉬며 '큐' 사인을 주는 순간 가슴 가득 차오르는 뿌듯한 만족감과 해냈다는 승리감, 짜릿한 전율은 모든 여건이 잘 갖춰진 오늘의 방송생활에서는 맛보기 힘든 것이 아닐지.

이와 비슷한 촌극들을 수없이 벌여야 했지만 그것을 괴롭다거나 지겹다고 여긴 적은 없었던 것을 보면 방송이란 정녕 아편 같은 것인가. 초를 다투는 시간 속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24시간이 온통 방송을 위한 시간인 양 지내다가 문득 깨달아 보니 생의 황금기

정녕 방송은 아편 같은 것인가

는 나도 모르는 새 내게서 몽땅 빠져 달아나 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손익을 덮어두고 생각한다면, 나의 능력, 정열, 시간 등 모든 것을 내던져 전력투구한 생활이었다는 점에서 유감없는 세월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와병 중이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추모방송 제작이 내게 맡겨졌다. 서거 소식이 전해지면 모든 방송이 일제히 추모방송을 할 것이므로 나는 보이지 않는 경쟁자들을 의식하면서 투지를 불태웠다. 그 결과 주어진 40분보다 20분을 오버한 제작물을 만들었다.(기획 당초부터 나는 60분을 달라고 우겼고 그대로 제작했던 것이다) '일단 제작해 버리면 편성부에서도 봐주겠거니' 했던 예상은 어긋났다. 할 수 없이 며칠동안을 녹음 테입을 틀고 또 틀고 하면서 20분을 잘라내려고 했으나 도무지 자를 데가 없었다. 부장은 '어떻게든 잘라내라'고 하고 나는 '도저히 못하겠으니 시간을 재편성하도록 편성부와 다시 한번 조정을 해달라'고 떼를 쓰면서 몇 날이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저녁을 먹는데 까무라칠뻔했다.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전하는 뉴스가 흘러나온 것이다.

어떻게 튀쳐 나왔는지, 어떻게 택시를 잡아 타고 회사로 왔는지 내 정신이 아니었다. 사색이 돼 제작부 문을 밀치고 들어서니 귀에 익숙한 녹음소리가 들리고 부장이 녹음기 앞에서 가위질을 하고 있었다. 그 때의 고마움, 송구함이란....죄인처럼 옆에 서있다가 부장이 웬만큼 편집한 일부분을 들고 주조로 뛰어 올라가 기계에 걸고, 방송이 나가는 사이 또 편집된 테입을 들고 뛰기를 서너차례 거듭한 끝에 무사히 방송을 마쳤다. 20분이라는 엄청난 분량을 적절한 부분에서 정확하게 잘라내는 부장의 침착성과 역량은 놀라웠다. 그가 아니었으면 나는 도저히 그런 곡예를 부리지 못했을 것이다. 방송을 마치고 의자에 주저앉자 등골에 소름이 짝 끼쳤던 기억. 그때의 김준철 부장은 지금 미국 LA에 살고 계신다.

스포츠 시즌이던 어느 날, 내가 맡고 있던 생방송 시간에 스포츠 중계를 한다고 편성에서 알려졌다. 뜻밖에 황재한 금싸라기 시간을 어떻게 쓸까 하다가 송민영을 만나기

로 했다. 송민영은 황문평, 손석우, 박준석, 이봉조 등과 함께 우리 가요계를 이끄는 대중가요 작곡자였다. 환칠한 키에 이국적인 수려한 용모, 부드러운 바리톤 음성의 멋진 30대였다. 전화를 했더니 오후에 아스토리아호텔에서 공개녹음 스케줄이 있으니 거기서 보잔다. 그 시절 아스토리아호텔은 초일류 호텔이었다.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는 곳에서 '신사'만이 보여줄 수 있는 세심한 배려를 받으며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용건은 끝났지만 돌아오기가 싫었다. 공개녹음을 구경한다는 핑계로 눌러 앉았다.

그런데, '서명규'였나? '김세화'였나? 엔지니어 몇 사람이 녹음기 재를 들고 들어오다가 나를 보더니 눈이 둥그레지며 묻는다. "지금 회사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어찌자고 여기 있느냐"는 것이다. 이거야 정말! 변덕쟁이 편성부를 저주하면서 풀이 죽어 돌아온 나를 부장과 동료들은 탈진한 모습으로 맞아줬다. 중계가 취소돼 내 프로그가 살아났는데 내가 안 보이니 '그저 잠시 비웠나보다' 여겼다가 방송 10분 전쯤 문득 부장이 체크를 했단다. 다방마다 전화해도 행방이 묘연. 그 제서야 모두들 당황하여 한 사람은 시그널 챙기고, 한 사람은 레코드 실로, 한 사람은 아나운서실로, 부장과 몇 사람은 원고를 만들어 주조로 뛰어가서, 한 사람이 방송 중내내 "ON AIR" 불이 켜진 부스 안에 숨죽인 채 육중한 문을 붙잡고 서서, 밖에서 한 장씩 디밀어 주는 원고를 다시 아나운서에게 넘기는 곤욕을 치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날 저녁 벌주罰酒를 산 내게 그들은 모처럼의 즐거운 나들이를 망친 편성부를 함께 나무라는 의리를 보이기도 했다.

이런 일들은 모두 인사동 시절 얘기가. 정동으로 오면서는 기구도 확장되고 작업여건이 좋아져서, 스튜디오 싸움 같은 건 일부러 해보려 해도 할 수 없었다. 그쯤 되니 가끔은 좁은 방에서 이마를 맞대며 일하던 아기자기한 분위기가 그리워지기도 한다.

〈1985년 6월 『MBC가이드』에서 발췌〉

필자는 1964년 입사. '주부휴게실'등을 제작했고 편성부 차장을 지냈다. 1971년 방송계를 떠나 출판계에 몸담았다.



1969년 봄 백운대에서. 뒷줄 왼쪽이 필자. 앞줄 오른쪽 유혜자PD

제주 생활 3년을 마치고



이승엽(관리)

2017년도에 자전거를 타고 제주 일주를 한 적이 있다. 그때 기억이 좋아 '퇴직하면 제주에서 1년 정도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는데 감사하게도 제주MBC 사장으로 발령이 났다. 선배님 한 분이 '제주스럽게 살다 오라'는 당부 말씀도 주셨다. 어떻게 사는 것이 '제주스럽게 사는 것'인지 고민하다가 '제주 섬에 스며들다 오라'는 말씀이겠지 하고 나름 정리했다.

▶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서울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20분 거리의 출, 퇴근시간. 아침이나 저녁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한적한 동네 산책이 가능하고, 가까운 바다나 포구를 찾을 수 있고, 굴 밭이 즐비한 골목을 배회,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했다. 늦은 봄부터 초여름까지 흰 굴꽃이 만발하던 그 아름다움과 향기의 진동은 잊을 수 없다.

▶ 사계절 내내 꽃을 볼 수 있다

동백을 시작으로 수선화, 매화, 유채, 벚꽃, 메밀꽃, 굴꽃, 수국, 산수국으로 이어지는 봄여름은 꽃의 천국이다. 가을은 억새에서 시작해 억새로 마치는 분위기다. 억새는 처음 열은 분홍색에서 점차 은색, 하얀색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독특하다.

햇볕에 반사되어 반짝거리는 억새를 보면 가을의 황량하고 쓸쓸한 기운이 사라지고 청아하고 적당히 스산한 억새 천국이다. 따라 비오름, 새별오름, 산굼부리, 거문오름이 억새 명소다. 겨울에는



신천목장

다시 동백을 시작으로 꽃이 피기 시작한다.

무엇보다도 한라산 1100도로 양쪽 나뭇가지 위에 피어있는 눈꽃이 압권이다. 1100고지 전망대 주위까지 눈꽃 광경이 이어지다가 서귀포 쪽으로 내려가자마자 감쪽같이(온도 차이로) 눈꽃이 사라지는 모습이 신기하다. 가로수 또한 인상적이다.

곳곳에서 볼 수 있는 후박나무. 아주 품위 있고 격조가 있다. 통영이하 남쪽지역에서만 살 수 있는 나무라 한다. 서귀포에서 볼 수 있는 가로수 먼나무. 붉은 열매가 아주 멋있다. 후박나무, 먼나무 모두 남국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나무들이다.

▶ 최고의 압권은 오름

한라산 기슭에 분포하는 소형 화산체 기생화산을 제주에서는 '오름'이라 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산과 달리 분화구가 있는 야트막한 구릉지를 말한



꽃자왈

다. 처음 올라간 오름은 용눈이오름, 사진작가 김영갑의 용눈이오름 작품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완만한 능선의 아름다움과 정상에서 바라보는 바다와, 겹겹이 주위에 세워져 있는 오름의 군집들이 벅차오르게 하고 묘한 감정을 자아냈다. 여러 번 올랐다. 그때마다 느낌이 조금씩 달랐다.

오름의 여왕 다랑쉬오름, 가을 억새오름 따라비, 추사 김정희가 좋아했던 바굼지오름(단산), 대평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군산오름, 성산일출봉, 한라산 정상 가까이 있는 산정호수 사라오름, 분화구 내에 삼나무가 콜로세움 처

럼 서 있는 아부오름, 4.3의 순이 삼촌 오름 서우봉 등등 오름 마다, 갈 때 마다 그 느낌이 매번 다른 오름들. 제주에는 오름이 360여 개가 있다. 제주 여행의 필수코스다. 그 특별함은 직접 올라보아야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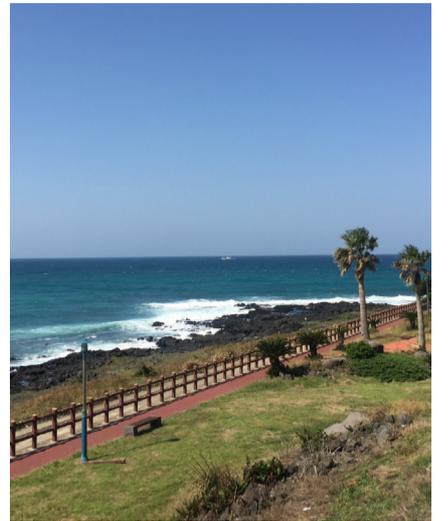
▶ 또 다른 보물, 꽃자왈

화산활동으로 생성된 암석들이 쌓인 곳에 만들어진 숲으로 '제주의 허파'라 부른다. 이끼가 자라고 있는 돌무더기, 그 돌을 뚫고 자라고 있는 나무들의 숨결, 숲속의 정원 같은 숲이다. 화산꽃자왈, 제주꽃자왈도립공원, 교래꽃자왈이 인상적이었다.

▶ 제주에서 볼 수 있었던 아름다운 몇 장면

#1 소박하고 끈끈한 연대

지역신문에 "축 학위 취득 고 00. 그간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계속 정진하여 큰 재목이 되기를 기원한다. 아빠 형제 일동. 00



제주 바다

#3 신천목장의 굴껍질 말리기

성산을 신천리에 있는 신천목장. 넓은 초지 위에 겨울 한 철에만 약재용으로 감귤 껍질을 말리는 모습이 장관이다. 초원이 온통 주황색으로 덮여 환상적이다. 목장 바로 앞에 바다가 펼쳐지고 올레길 4번 코스다. 푸른 하늘, 주황색 땅(굴껍질), 질푸른 바다 삼색의 조화가 탄성을 자아낸다. 겨울 한 철만 볼 수 있는 진풍경이다.

#4 재일在日 제주도민 방문행사

새해가 되면 도지사를 비롯한 기관장들이 일본 거주 제주 출신 교민들과 인사하는 신년하례회 행사가 매년 도쿄와 오사카에서 열린다. 제주가 살기 어려웠을 때 제주인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고생해서 번 돈을 기부하여 고향의 번영을 일으켜 오늘의 제주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 표현이자 이를 후세들에게 미풍양속으로 잇자는 뜻에서 만들어진 행사다. 서로 지극 정성을 다해 예를 갖추는 상호존중 정신과 애함은 귀감이 되었고, 일본사회에서 그분들이 견뎌왔던 시절을 생각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 감사하고 행복한 3년

육지와는 다른 문화와 관습을 체험하며 제주 섬에 스며들 무렵 제주를 떠났다. 제주생활 2년차 무렵부터는 제주 사투리들이 귀에 들려서 혼자 뿌듯하기도 했다. 시절인연으로 제주의 자연, 제주 사람들과 정이 많이 들었다. 이별은 평생 지속되는 삶의 한 요소며 사는 동안 반복되는 일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글이 떠오른다. 감사하고 행복한 3년이였다.

‘부동산 중개 마당’을 제안합니다



박진석(기술)

저는 MBC미디어텍 사장을 끝으로 회사를 퇴직한 후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상당 기간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해왔으며 지금도 그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우회원들이 꽤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분들과 힘을 합한다면 사우회원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도 드릴 수 있고 나아가 사우회 운영 재원 마련에도 얼마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기획의도

부동산은 우리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서 많은 분들의 관심 대상이지만 실체와 전망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종목입니다.

특히 노년의 삶을 설계하려는 사우회원들의 입장에서는 ‘실력 있고 믿을만한 부동산 전문가’의 조언이 절대로 아쉬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부동산 관련 정책이 수시로 변화하고 있는가 하면 계속되는 비대면 시대를 살다보니 회원들 상호간의 교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퇴직 후의 보유 부동산 활용에도 많은 난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사우회에 가칭『부동산 중개 마당』을 개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제안은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회원님들의 관심과 도움을 기대합니다.

◆기대 효과

사우회가 보유한 인적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활용하여

▶사우회원들이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 중개수수료를 법정수수료의 50%로 절감할 수 있으며

▶사우회원들의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관련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매도, 매수, 임대, 임차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계약 성사에 따른 일정 비율의 인센티브를 정보제공자에게 지급하며

▶장기적으로는 사우회의 수익 사업으로 연계함으로써 사우회 운영재원을 확보하는 데도 보탬이 될 것입니다.

◆추진 방안

▶첫 번째는 시범단계로 현재 공인중개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우회원들과 협력하여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우회원들의 참여 성향을 파악해야 하며

▶두 번째는 협력단계로 특정 부동산업체와 사우회가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세 번째는 독립단계로 사우회안에 자체적인 부동산중개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네 번째는 확장단계로 부동산중개법인과 연계하여 유튜브 방송 등 다양한 형태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운영 방안

▶사우회원들에게 사업 개요 및 취지를 고지하여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우회 사무실을 거점으로 활용함으로써 별도의 사무실 비용 지출이 없고

▶자체 부동산 중개법인을 설립하기 전까지 사우회원 중 중개사 자격 보유자나 관련업 유경력자와 협력관계로 운영하면 별도의 인건



비 지출이 필요 없고

▶필요시에는 사우회 단독방을 개설하여 부동산 관련 각종 정보 교환을 하며

▶수익에 관련된 일체 사항을 사우회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회사 재직 당시에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부동산 중개사 업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느끼는 점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가 사우회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두서없는 제안이지만 저의 진정성을 이해해주시기를 간청하며, 혹 부동산 관련 문의가 있으시면 010-9105-1365 박진석에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BC 사우회 제휴 협력병원] 중앙보훈병원 국가보훈대상자 위탁진료병원 선정 [10년연속]

노안·백내장 수술 여의도, JC 빛소망안과의원!

[안과전문의 9명 · 내과전문의 1명 · 마취과전문의 1명]



JC 빛소망안과 의원 02.785.1068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5번 출구 맨하탄빌딩(구 여의도백화점) 6층